

여수엑스포 결정 D-7

여수 현지 표정

“더 이상 실패 없다” 유치 열기 후끈



시가지 엑스포 깃발·태극기 물결  
철야 기원제 등 7일간 염원 행사

때 이른 겨울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하던 19일, 그러나 이날 남도 미항 여수에서는 2012세계박람회 유치를 염원하는 열기로 시가지가 후끈 달아올랐다.

이날 여수시청 앞 광장에서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출정식이 열려 엑스포 유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재삼 확인했다.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기를 손에 쥔 1천여 명의 행사 참가자들은 “2012 여수 코리아”를 목이 터져라 외쳤다.

오는 27일 새벽 3시(한국시간)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1주일 앞둔 여수는 지금 온통 ‘엑스포 세상’이다. 하늘의 관문인 여수공항에서 석창 사거리, 쌍봉사거리에서 둔덕동 11호광장, 학동 시청 앞에서~웅천고개~문수동 등 간선도로에 빼곡하게 내걸린 엑스포 심벌과 BIE 회원국기가 ‘결전’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다.

또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슬로건으로 하는 여수엑스포 주제 깃발과 엑스포 로고 배너도 합쳐 나눠가며 그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여수시민들의 유치 열기를 전했다.

출정식이 열린 이날 여수시내에서는 또 하나의 장관이 연출됐다. 이날부터 2012 여수엑스포를 기원하며 기관단체는 물론 각 가정과 업소에서 태극기 달기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시민들은 아파트 외벽에까지 줄을 매달아 태극기를 게양하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불태웠다. 여수 시가지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에 호응하듯 힘차게 펄럭이는 엑스포기와 태극기 물결로 출렁거렸다. 여수시 학동 박 모(48)씨는 “시민들이 한

마음으로 염원해 온 엑스포를 반드시 유치해 세계 속의 여수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쓰겠다”는 굳은 각오를 밝혔다.

시민들의 염원은 엑스포 유치가 결정될 때까지 이어진다. 지난 18일 여수시청 회의실에서는 1천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여 기도를 통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간절하게 소망한 데 이어 개최지 결정때까지 다양한 행사로 열정을 사르며 된다.

오는 22일~26일에는 매일 정오 엑스포 개최를 열망하는 사이렌이 시가지에 울려 퍼진다. 시민들은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다시 한

번 세계박람회 유치 의지를 다지게 된다.

또 2012세계박람회 개최지가 결정되는 27일 새벽 3시에 맞춰 전날 밤부터 여수시청 앞에서는 수 천 명의 시민들이 나와 응원을 펼치며 철야 기원제를 갖는다. 여수시는 26~28일 시청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엑스포 유치전 결과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할 계획이다.

여수시 문수동 윤모(39)씨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2012 세계박람회가 반드시 여수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오현섭 여수시장을 비롯, 여수지역 기관단체장과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오전 여수시청 광장에서 ‘여수박람회 필승 유치단 출정식’이 열렸다. 오는 27일 파리에서 열리는 BIE총회 참가대 대표들이 박람회 유치를 염원하는 불꽃점화 버튼을 누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여수 유리하지만 막판 변수 많아 방심 못해”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19일 2012년 세계엑스포 개최지 결정과 관련, “관세는 아직 여수에 유리하지만, 변수가 많아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을 갖고 8일 남은 2012년 세계 엑스포 개최지 결정에 아직 3대 변수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 세계엑스포 개최지는 오는 27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비밀투표로 결

정된다.

강 장관이 꼽은 첫번째 변수는 양다리를 걸친 국가들. 강 장관은 “우리나라도 관세가 여수에 유리하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경쟁국인 모로코도 관세분석상 자국이 유리하다고 보는 점으로 미뤄 우리측에도 지지약속을 하고 모로코측에도 지지약속을 해 양다리를 걸친 국가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번째 변수는 비밀투표다. 강 장관은 “각국에서 주로 프랑스 파리 공관에 파견돼 있는 외교관들에게 BIE 대표를 맡게 해 특정

국에 투표를 하라고 훈령을 내리지만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본국의 훈령과 달리 투표하는 이들이 통상 10~15%는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파리 현지에서 BIE 대표들을 상대로 마지막 유치 활동이 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이 꼽은 세번째 변수는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BIE 회원국 수다. 강 장관은 “지난주 114개국에 달했던 BIE 회원국 수가 이번주 들어 120개국으로 늘었다”면서 “BIE 가입에 특별한 자격조건은 없으며 소액의 예치금만 내면 어느 나라나 가



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130개국까지는 회원국수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국가의 표심을 누가 잡느냐도 2012년 세계엑스포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출국, 이집트를 방문해 마지막 유치활동을 벌인 뒤 오는 22일 개최지 결정이 이뤄지는 프랑스 파리에 합류할 계획이다.

여수세계엑스포 유치 주무 장관인 강 장관은 취임 이후 5차례에 걸쳐 19개국을 방문해 해당국 대통령과 총리, BIE 담당장관들을 만나 유치활동을 펼쳤다. /연합뉴스

‘BBK 수사’ 주말쯤 일단락

한나라 적극 협조... 김경준씨 “증빙자료 있다”

김경준(41)씨를 구속한 검찰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주가지조작 가담 및 (주)다스의 실소유’ 의혹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 측의 인사들도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하고 있어 예상보다 빨리 수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선후보 등록(25~26일) 이전에,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임(24일, 취임식은 26일) 이전에 뭔가 나올 것이라는 예 측이 퍼지고 있다.

◇한나라당 “이 후보 빼고 다 나간다”=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장 큰 동인은 한나라당의 협조다.

한나라당은 이 후보만 제외하고 사건에 직·간접 관여한 인사들을 모두 검찰에 보낸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 측 참고인들의 수사 비협조로 수사가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검찰 우려와 달리 이 후보 쪽에서도 적극 수사에 응해 이 후보가 BBK 경영 및 영업비밀채스 주가지조작과 무관함을 입증하겠다는 것.

클린정치위원회도 최근 격론을 통해 “이 후보만 빼고 전부 검찰에 나가 ‘화끈하게’ 사실 관계를 증언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이 후보의 최측근은 미국 법정소송 대리인인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를 18일 검찰에 출두

시켜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8월 도곡동 땅 및 (주)다스 차명소유 의혹 수사 때 참 고인이 수사에 응하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이번엔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아직 이 후보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조사를 보내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인 이 후보를 조사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김경준 “입” 뒷받침 증빙자료 있다=김경준씨도 검찰 조사에 적극적이다. 김씨는 송환되던 날 여유로운 표정과 웃음을 지어 데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될 때도 피곤한 표정으로 입은 닫았지만 오른손 엄지를 위로 꺾듯 세워보여 자신감을 표출했다.

본인의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점만 보더라도 그가 가져왔다는 자료가 자신의 개인 범죄가 무혐의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 자료를 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진위 여부를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팽팽하게 맞서는 양측의 주장과 달리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 관계를 진술할 기관투자가 등 ‘제3의 참고인’에 대한 조사에 서울메트로 감사를 18일 검찰에 출두

이면계약서 들어있을수도

에리카 김 보낸 서류박스 주목

영업비밀채스 주가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의 누나 에리카 김씨가 상당한 분량의 사건 관련자료를 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류박스를 동생측에 보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오전 김경준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수중 변호사의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는 에리카 김씨를 발신인으로 적은 박스 1개가 도착했다. 이 박스에는 발송지가 에리카 김씨의 소재지인 LA로 적혀 있으며 내용물은 ‘서류’로, 무게는 10.4kg이라고 표시돼 있다.

에리카 김씨가 동생의 회사인 BBK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해당 서류들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김씨의 주가지조작 및 횡령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자료에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의 사건 연루 의혹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이면계약서’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경준씨는 한국 송환 전 언론과 접촉해 “이 후보와 함께 세운 LK뱅크가 BBK의 지주회사로 이 후보가 BBK의 100% 실 소유주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며 ‘이면계약서’의 존재를 주장한 바 있다. 또한 BBK 투자자들이 이 후보의 권유로 투자했다는 근거자료나 하나은행 투자 유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 자금거래 내역 등도 서류박스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김씨가 누나를 통해 받은 자료들이 신빙성을 갖춘 것이라면 이미 김씨 본인의 혐의사실에 대한 입증은 마친 검찰이 향후 이 후보의 사건 연루 여부를 밝히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CONTACT Gold' medicine. Features a large stopwatch image and text: 'CONTACT 골드' (CONTACT Gold), '초기 감기는 시간과의 싸움' (Early cold is a battle with time), '감기는 초기에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It is important to catch a cold early). Includes the logo for '유한양행' (Yuhan Yanghyang) and contact information.